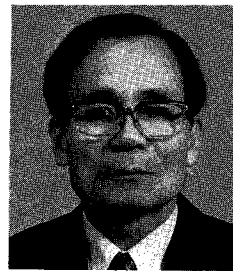


산란계 세계화로 규모 커져 환경오염 극복 과제 남겨



손 병 원

푸른축산 대표, 본회이사

우리의 양계산업을 60~70년대로 거슬러 회고해 보면 술한 고난의 세월이었으며, 규모면 에서도 100수 200수 사육이 큰 규모였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양적, 질적으로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육규모가 100수~200수 일 때는 모래평사 사육과 함재기 급수통이 전부였는데 300~500수의 사육규모로 발전하면서 빠다리 평사 사육과 큰 병에 물을 담아 거꾸로 세워주던 방법으로 발전했으며, 사료도 싸라기, 쌀겨, 개구리에서 밀, 옥수수 분쇄에 떨치 부스러기를 혼합하여 자가 배합했던 시절이 있었다.

5·16이후 사회의 전반적인 산업구조가 급변하면서 누구나 “하면 된다”는 슬로건 아래, 필자가 몸담아 온 이곳 풍기에서도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용기와 신념을 가지

고 해 보자”고 시작 한 것이 동부양계단지였다. 그러나 당시 양계단지를 막상 추진해보니 없는 것이 왜 그리 많은지 자금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 무엇하나 있는 것이 없으니 참으로 막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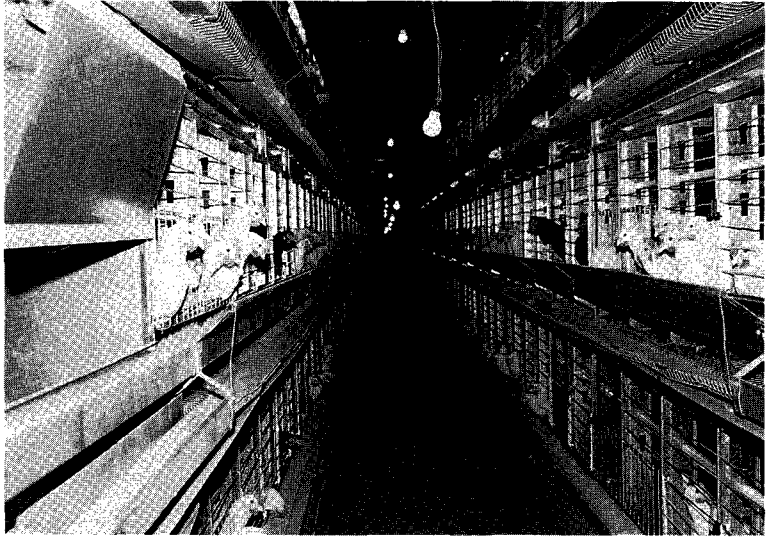
그때 1차 5개년 경제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에서는 농공병진법을 발표하고 학계에서는 건국대학교에서 특강을 실시하였는데 우선 계획에 자신감이 있고, 확실성이 있으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최고의 양계장과 최고의 양계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한 것이 평생 양계와 더불어 고회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시대적인 요청이 양계규모를 늘리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규모 확장에 따라 양계사육 방법과 시설도 급변했다.

나무 쥘 대 빠다리 사육이 케이지로 바뀌고, 1수용이 2수용으로 늘어나면서 그 시설에 맞는 급이 급수 방법이 변화하였으며 사료 또한 팔목할 만큼 발전을 하였다.

1980년대에는 다양한 개발 계획을 하고 경제 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양계사육 규모가 1동에 3천~5천수 단위로 바뀌고 차츰 전업형태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양계업은 환경 친화적인 사육이 안되면 양계업을 포기해야 하는 급변을 재촉했던 것이다. 급기야 1990년대 UR, WTO의 타결로 우리는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는 시대를 맞으면서 양계 산업은 그야말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다.

우리 지역 양계인이 단합해서 풍기계우회를 조직하고 우리 생산자가 직접 판매시장을 개척했다. 유통과정중 부도로 인해 술한 시련과 난관이 있었지만 모두다 협심하여 잘 해결되어서 우리들에게는 좋은 교훈이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가 또 우리를 그냥 두질 않았다. 3천수 5천수의 사육규모가 2만수, 3만수가 되더니 곧 5만수, 10만수 규모의 무창계사 완전 자동화로 급격히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설 개선을 하면 안전하고 참으로 좋을 줄 알았는데 구 시대의 유통체계와 품질 경쟁이 우리를 어렵게 했고 닭티푸스라는 생소한 질병이 양계인들을 놀라게 했으며 유통질서는 전국이 일일권으로 바뀌면서 1990년대는 지나온 30년 보다 더욱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더욱이 지난 2, 3년간 변화는 너무 많아 더욱 답답해진다. 우리 “식탁에 오르는 제란”이 수입된다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금년에 수차례 수입된 것은 다 알다시피 식란으로 시판이 되었다. 놀라운 것은 태국에서는 중동과 중국에 닭고기와 계란을 수출해서 앞으론 당당히 세계시장에 1위를 하겠다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하니 놀라운 사실이 아닌가! 행정 당국에서는 전혀 이 사실을 개의치 않고 있는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사료 자원을 80%이상을 수입하는 입장에서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태국에서 수입된 계란이 생산되지 2개월이 넘었는데도 별다른 제재 없이 그냥 국민들 식탁에 올려지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가격 경쟁인데, 생산 원자재가 우리의 1/3밖에 안 된다고 하는 태국과 어떻게 경쟁을 해야 할 지 앞이 깜깜할 따름이다. 금년 9~10월 사이에 있었던 지역간의 갈등을 상상하면 참으로 걱정이 앞선다.

지나온 세월은 술한 고비가 있었지만 지금같이 답답한 적은 없었다. 무한 경쟁시대에 우리는 2000년대를 준비해야 하는 마음은 너무 급하다. 숨가쁘게 헤쳐 나가야 할 때를 맞이하여 지난 30년보다 더욱 더 단결된 모습으로 전체 양계인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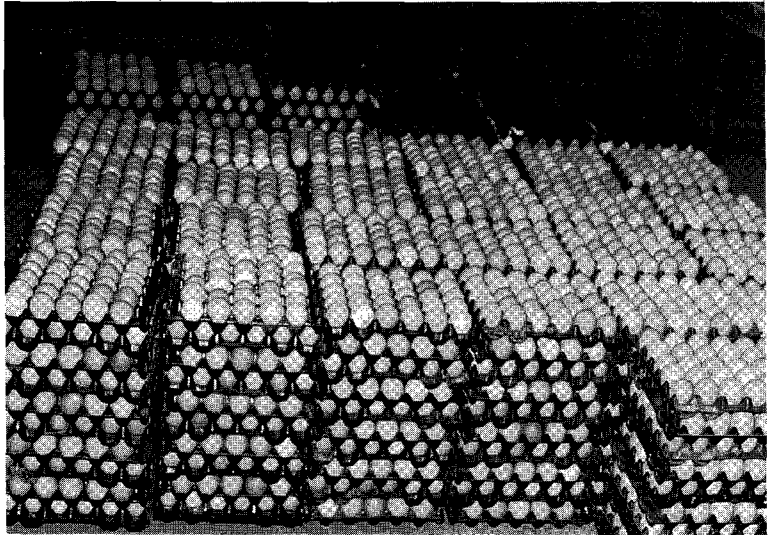
다시는 9~10월과 같은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하나 되는 길만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각성해야 한다.

아울러 자연 그대로의 계란, 잔여물질이 전혀 없는 계란, 항생제를 쓰지 않고 생산해야 되겠다는 각오와 실천만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생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차별화된 상품을 만들어 우리 국민이 우리 계란만을 선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모은다면 꼭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필자는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는 일이다.

지난 1994년도에 대한양계협회 회장단과 경기지방 회원 및 조합원 공동으로 우리지역 소백양계단지 시설초기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필자는 그 자리에서 국내 양계업자 간에도 다소의 경쟁은 불가피 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다시 그때를 회고하면 내가 너무 직설적인 말을 했다는 생각으로 미안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 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멀리서 온 손님들이 많았지만 듣기 좋은 말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감추어 말하기는 더



힘들었던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제 경쟁이 현실로 왔다. 이웃간 경쟁은 다소 사정 있을 수 있지만 국제 경쟁에 사정이 있었을 수는 없다.

생소한 IMF를 겪고 있고 세계 유명 유통회사들이 들어오면서 할인 매장이 대형으로 개설되었고 그 판매 방법이 예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해졌다. 소비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즉 할인판매 옆에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유통되는 현실은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힘들 것이며, 이 방법이 다시 어떻게 변할지, 소비자가 바로 인식할 때가 언제일지 아무도 모른다.

필자가 독일에 갔을 때 계란 유통회사인 골드라인이란 회사에서 계란을 등급판매 하는 것을 보았다.

같은 중량의 알이 삼등급으로 구분되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보았다. 일본에서 계란판매는 냉장 판매가 기본인 것도 보았다. 우리 소비자 인식의 차이는 너무 컸다.

우리는 지금도 소매업자는 물론 대형할인 매 장조차도 30℃를 오르내리는 판매대에서 계란 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유통체계의 대부분은 화물자동차에 의 한 운송이다. 계란은 완전식품으로서 우리국민 의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식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생산농가가 아무리 좋은 품 질의 계란을 생산한다고 해도 신선도가 유지되 지 못하는 유통체계와 판매 방법으로는 소비자 들의 호응을 얻을 수 없고, 다가오는 무한 국제 경쟁 시대에 우리 양계인은 결국 설 땅을 잃어 버리게 될 것이다.

식품관리규정을 강화하여 우리 양계인은 청 정계란만을 생산하여야 하고, 보다 신선한 상 태의 계란을 냉장차를 이용하여 배송하고, 냉 장케이스에 진열된 계란을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도록 생산자, 유통업자, 판매업자 모두가 삼

위일체가 되어야만 우리 양계인은 무한경쟁시 대에 살아 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사육환경과 방법의 변화와 더불어 유통체계 도 새로운 환경을 맞아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 다. 지금까지 생산에 비해 유통체계는 질적, 양 적 발전에 미치지 못하고 재래방식을 답습했지 만 이제는 급변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하차시 인력과 시간의 절약을 위해 규격화, 자동화 쪽 으로 발전할 것이며 선진국처럼 냉장차 보유 및 냉장진열 시설과 포장단위의 다양화로 신선 한 계란을 원하는 소비자 기호에 따라 갈 것으 로 생각된다.

그래서 우리 양계인 들은 21C변화에 대처하 기 위해서 친 환경적이고 소비자를 생각하는 명확한 목표와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며, 지 나온 30년보다 더 강한 노력을 기울이는 길만 이 공생 발전하리라 여겨진다. **양계**

개량 토종닭 분양

※ 분양 품 종

- ★ 한협 3호 분양
- ★ 청둥오리 분양

※ 병아리 분양 및 상담

- 매주 [화요일] [금요일] 분양합니다.



동 남 농 원

주 소 : 경기도 안성군 일죽면 송천리 478번지
 전 화 : (0334)672-0088, 674-0606, Fax:(0334)674-0050
 핸드폰 : 011-307-7208, 호출기 : 012-1363-7208
 농 협 : 237020-52-019626, 예금주: 윤 용 구
 우체국 : 101634-0021930, 예금주: 윤 용 구